학술세미나

Risk-based Global Insurance Capital Standard(ICS)

본 자료는 2017년 6월 13일 개최된 학술세미나 「Risk-based Global Insurance Capital Standard(ICS)」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

CONTENTS

학술세미나 Risk-based Global Insurance Capital Standard(ICS)

Ⅰ. 개최 취지 5

Ⅱ. ICS Development 6

「한태진」(금융감독원 선임)

Ⅲ. Market Adjusted Valuation의 이해 8

「김범」(숭실대학교 교수)

Ⅳ.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와 가용자본 인정기준 9

「김해식」(보험연구원 연구위원)

Ⅴ. 요구자본의 산출방식과 리스크 요인의 상관성 10

「이항석」(성균관대학교 교수)

Ⅵ. ICS 필드테스트를 통해 본 실무적 이슈 11

「한민섭」(삼성화재 책임)

Ⅰ. 개최 취지

■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(IAIS)[1]는 국가별 자본규제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보험그룹(IAIG)[2]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자본기준인 ICS[3]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

○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감독의 국경 간 차이에 의한 규제차익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각국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를 수렴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

○ IAIS는 2013년 ICS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까지 최종안을 채택하여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임

■ 한편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ICS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-ICS를 도입할 예정임

○ 현재 금융감독원은 K-ICS 기준 마련을 위한 1차 공개협의안을 제시하고 보험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임

■ 이에 본 세미나는 ICS 추진경과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험감독기준의 국제 표준을 이해하고 세계보험감독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최됨

○ 제1주제(ICS Development)는 추진경과, 구성요소 등을 중심으로 ICS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함

○ 제2주제(Market Adjusted Valuation의 이해), 제3주제(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와 가용자본 인정기준), 제4주제(요구자본의 산출방식과 리스크 요인의 상관성)는 ICS 구성요소인 자산·부채평가, 가용자본, 요구자본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봄

○ 제5주제(ICS 필드테스트를 통해 본 실무적 이슈)는 1차, 2차 필드테스트를 통해 제기된 실무적 이슈에 대해 살펴봄

1)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
2)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
3) Risk-based Global Insurance Capital Standard

Ⅱ. ICS Development

「한태진」(금융감독원 선임)

■ IAIS는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의 국가 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지급여력평가인 ICS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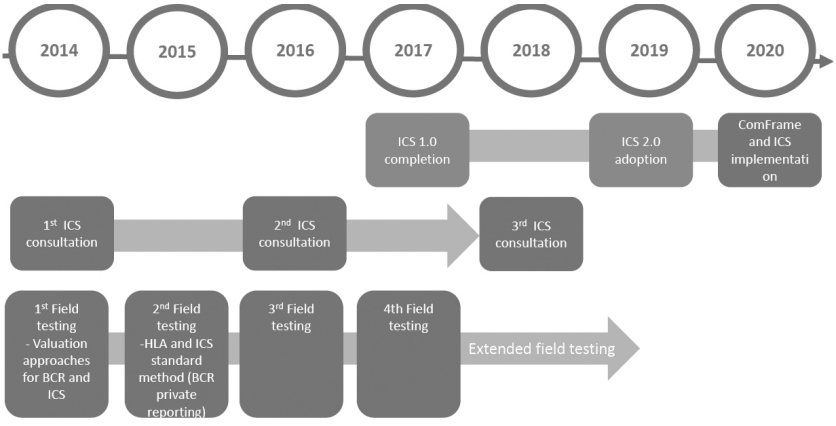
○ ICS는 IAIS의 주요 임무인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제고에 부합

■ ICS 개발작업은 2017년까지 추진되는 ICS 1단계에 이어 2019년에 완료되는 ICS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, 완성된 ICS는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임

○ ICS 1단계는 2017년 채택 예정으로 그 적용 결과를 IAIS에 비공개로 보고(confidential reporting)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지금까지 3번의 의견수렴과 4번의 필드테스트를 실시함

○ ICS 2단계는 2019년 채택 예정으로 각국 감독자에 의한 실행을 목적으로 함

그림 Ⅱ-1 ICS 추진경과



자료: IAIS

■ ICS의 주요 특징을 적용대상, 구성요소, 리스크범위로 나눠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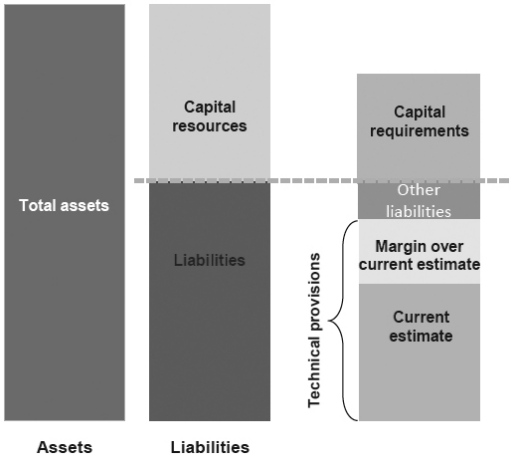
○ 적용대상: 글로벌 보험그룹(IAIG) 대상으로 그룹 및 연결 기준 자본적정성을 산출하고 최소 기준을 제시

○ 구성요소: ICS는 자산·부채평가(valuation), 가용자본(capital resources), 요구자본(capital requirement)으로 구성

- ICS는 자산, 부채, 요구자본 및 가용자본 간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여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치로 일관성 있게 평가하고 위험을 적절히 인식하여 측정하는 방식인 총재무상태표 접근방식(total balance sheet approach)을 기초로 함

○ 리스크범위: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주요 리스크(보험, 시장, 신용, 운영)를 모두 고려함[4)]

그림 Ⅱ-2 ICS 구성 - 총재무상태표 접근방식



자료: IAIS

■ 국제적으로 적절하고 의미 있는 자본기준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에서의 전문가 및 보험회사들의 의견 개진이 필수적임

○ 특히 아시아 사업에서의 리스크 측정방식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이 필요함

4) 그룹 및 유동성 리스크는 명시적으로 포함하지는 않음

Ⅲ. Market Adjusted Valuation의 이해

「김범」 (숭실대학교 교수)

■ 연구의 의의

○ 최근 변화되는 국제적 보험회사 규제의 방향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보험감독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 마련

■ 국제적 보험회사 규제의 틀과 Market Adjusted Valuation(MAV)

○ 국제적 보험회사 규제의 틀은 모든 보험회사(개별 보험회사 및 보험그룹)에 적용되는 Insurance Core Principles(ICP)와 글로벌 보험그룹(IAIG)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그룹(G-SIIs)에 적용되는 ComFrame(ICS 포함)으로 구분

○ ICS는 자산·부채평가, 가용자본, 요구자본으로 구성되며, 자산·부채의 가치평가방식은 시장기준조정방식(MAV)과 일반회계수정방식(GAAP+)으로 구분

■ 시장기준조정방식(MAV)과 일반회계수정방식(GAAP+)

○ MAV는 기존의 IFRS나 GAAP에 근거한 대차대조표에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보험부채, 재보험을 조정하고 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최적추정방식(best estimate basis)에 의해 재평가하도록 요구

○ GAAP+는 MAV의 대체방식으로 최적추정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일부의 부채에 대한 재평가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GAAP/IFRS 방식을 따르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

■ 주요 이슈

○ 보험시장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단일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, 위험 및 자본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 접근방식이 가능한가, 제도 도입이 규제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가 등의 이슈가 존재하고 도입방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

Ⅳ.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와 가용자본 인정기준

「김해식」 (보험연구원 연구위원)

■ IAIS는 가용자본의 질에 따라 인정 한도를 달리하는 5가지 인정기준 제시

○ 자본이 언제나 손실보전에 사용 가능한지(손실흡수성), 모든 손실에 사용할 수 있는지(사용제한), 만기 제한은 있는지(영구성), 현금유입이 완료된 자본인지(가용성), 계약자보다 나중에 상환 가능한지(후순위성)로 평가

○ 5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Tier 1 자본으로서 100%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, 기준에 일부 미달하는 경우 일부만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Tier 1 자본 또는 Tier 2 자본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제시됨

■ IAIS는 'ICS 공개초안 1.0'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, 가용자본의 경우 후순위성, 가용성, 영구성 등과 관련하여 나라마다 또는 감독자와 보험회사 간 의견이 엇갈리는 이슈들이 존재

○ 영업을 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보험 자회사에 대여한 경우 서면으로 후순위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상 후순위성 존재를 인정한다는 견해와 반대 견해로 나뉨

○ 가용자본 산출 시 자산에서 차감되는 소프트웨어와 이연법인세자산의 현금유입 가능성에 대하여 건전성평가의 관점을 청산 또는 계속기업 중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Tier 2 자본으로 인정하자는 견해와 반대 견해로 나뉨

○ 가용자본의 인정 한도에 대해 대다수가 인정 한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, 보험업의 정리방식이 장기간에 걸쳐 느리게 진행된다(slow resolution)는 특성을 고려하면 가용자본의 질을 구분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있음

■ 'ICS 공개초안 1.0'에 대해 각국 감독자와 보험회사가 제시한 의견은 어느 시점에서 보험회사 지급능력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, 가용자본에 대칭되는 요구자본의 논의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임

Ⅴ. 요구자본의 산출방식과 리스크 요인의 상관성

「이항석」(성균관대학교 교수)

■ 요구자본의 산출과 분류방식의 변화

- ○ 리스크 요소를 생명보험, 건강보험, 손해보험, 거대재해, 운영, 시장, 신용으로 분류하고 상관성을 반영하여 합산
- ○ 각각의 개별 리스크는 대응되는 하위 리스크들과 상관성을 반영하여 합산하며 각각의 리스크는 위험계수방식 또는 스트레스 방식을 통하여 산출함
- ○ 글로벌 보험그룹(IAIG)은 리스크 산출에 지역 간 상관성을 고려

■ 스트레스 방식의 장점과 이슈

- ○ 현행 가정의 순자산가치(NAV)와 스트레스 상황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하여 그 둘의 차이를 리스크로 인식
- ○ 장점은 실제 현금흐름의 반영과 리스크 경감수단의 활용이 가능
- ○ 스트레스 상황을 나타내는 시나리오 결정에 크게 의존하고 신뢰확률과 스트레스 수준과의 대응이 용이하지 않고 리스크의 과대 산출 가능성

■ 상관성 반영 이슈와 보험회사의 적극적 대응

- ○ 상관계수 결정 방법론이 명시적으로 공시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의 보험사, 보험협회, 계리사회, 감독기관 등의 상관계수에 대한 상이한 의견 존재
- ○ 상관계수의 하향 조정은 리스크 분산 효과의 증가로 나타나 요구자본량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요소
- ○ 우리나라 보험사의 필드테스트 참가 및 적극적인 의견 반영으로 새로운 지급여력 제도의 수립에 기여할 필요

Ⅵ. ICS 필드테스트를 통해 본 실무적 이슈

「한민섭」(삼성화재 책임)

■ ICS 1차 필드테스트에서는 리스크마진과 주식리스크가 주요 이슈 사항

○ 리스크마진: 1차 필드테스트 시 보험, 운영리스크 外 헤징 불가능한 시장리스크 항목으로 금리리스크 포함

→ Solvency II 사례 및 금리리스크가 이론적으로 헤징 가능함을 증명하여 2차 테스트에서 금리리스크 제외

○ 주식리스크: 1차 필드테스트 시 한국이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선진국 38%가 아닌 46% 충격 시나리오 적용

→ 주식리스크 산출 MSCI 인덱스를 FTSE로 바꾸어 한국을 선진국으로 재분류 및 주식 스트레스 수준 재산출(선진국 35%, 개도국 48%)

■ ICS 2차 필드테스트에서는 금리리스크와 가용자본이 주요 이슈 사항

○ 금리리스크: 주성분분석(PCA: Principal Component Analysis) 모형을 기반으로 금리 상승, 하락, 평행 충격 시나리오를 산출하였으나 금리리스크량이 과대

- 지난 몇 년 동안의 금리 하락 추세가 반영되어 금리 충격 수준 과대
- 유럽 등 마이너스 금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금리 하한이 -100% 가정되어 금리 충격 수준 과대
- 장기선도금리(UFR: Ultimate Forward Rate)에도 15% 충격 시나리오 적용

→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금리 하락 추세 제거, 하한 0에 가깝게 변경, 장기선도금리 충격 시나리오 10% 수준으로 축소

○ 가용자본: 감독기관 승인 없이 자사주 매입이 가능할 경우 ICS에서는 가용자본으로 불인정

→ 각국 법규에서 허용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토록 제안

학술세미나

「Risk-based Global
Insurance Capital Standard(ICS)」

발행일 | 2017년 7월
발행인 | 한기정
발행처 | 보험연구원
주 소 |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(여의도동 35-4)
연락처 | 02-3775-9000
인쇄처 | 경성문화사 / 02-786-2999
Copyright@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. All Rights Reserved.